

제 57 차 SGRA 포럼 (개요)

「일본·중국·한국에서의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원탁회의

「몽고내습과 13 세기 몽고제국의 글로벌화」

일시: 2017 년 8 월 7 일(월), 8 일(화), 9 일(수)

회장: 기타큐슈 국제회의장 국제회의실, 기타

주최: 아츠미국제교류재단 세키구치 글로벌연구회 (SGRA)

협찬: 기타큐슈시/(공재)기타큐슈 관광 컨벤션협회

협력: 가자마 학술진흥재단

■포럼의 취지:

동아시아에 있어서 「역사 화해」의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다. 강화조약과 공동성명에 의해 국가간의 화해가 법적으로 성립해도 국민 차원의 화해가 진전되지 않아 진정한 국가간의 화해는 어려운 상황이다. 역사가는 역사 화해에 있어 어떠한 공헌이 가능한 지에 관해 생각해 본다.

아츠미국제교류재단은 2015 년 7 월에 제 49 회 SGRA(세키구치 글로벌연구회)포럼을 개최해 「동아시아의 공공재」와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러한 가운데 먼저 동아시아에 있어 「지의 공유공간」 또는 「지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여기에서 화해로 연결되는 지혜를 동아시아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의를 확인했다. 이 플랫폼에 「국사들의 대화」라는 코너를 설치하게 된 것은 2016 년 9 월 아시아 미래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제 1 차 「국사들의 대화」였다. 지금까지 3 개국 연구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형태의 대화가 진행되어 왔지만 각국의 역사 인식을 좌우하는 「국사 연구자」들간의 대화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인식하에 먼저 동아시아에서 역사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관해 생각했다. 구체적으로는 미타니 히로시 선생님(도쿄대학 명예교수), 갈조광 선생님(북단대학 교수), 조광 선생님(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의 강연을 통해 3 개국이 각자의 「국사」속에서 아시아의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검토했다.

제 2 회 대화는 자국사와 타국사와의 관계를 보다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몽고내습과 13 세기 몽고제국의 글로벌화」라는 테마를 설정했다. 13 세기 전반의 「몽고내습」을 각국의 「국사」속에서 논할 경우 일본에서는 일본문화의 독립이라는 시점이 강조된다. 또한 중국에서는 몽고(원조)를 「자국사」로 간주하면서 몽고내습을 몽고와 일본과 고려라는 중국의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다룬다. 하지만 동아시아 전체의 시야에서 보면 몽원의 고려·일본 침략은 문화적으로 각국의 자아의식을 환기시키고 정치적으로는 중국 중심의 화이질서의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국사」와 동아시아 국제관계사의 접점에는 지금까지 의식하지 않았던 새로운 역사상의 존재 가능성이 기대된다.

물론 본회의의 목적은 입장에 따라 다양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화」에 의해 어떠한 합의를 도출하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활한 대화의 진행을 위해 일본어 ↔ 중국어, 일본어 ↔ 한국어, 중국어 ↔ 일본어 통역은 동시통역으로 진행한다. 또한 원탁회의 강연록은 SGRA 리포트로 3 개국어로 발행하고 관계자료는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http://www.aisf.or.jp/sgra/research/kokushi/>

■프로그램:

○ 8 월 7 일 (월) 오후 4 시~7 시 개회식 및 기조강연

취지 설명 (미타니 히로시)(10 분)

기조 강연 (갈조광)(30 분)

<”포스트 몽골시대”? -14~15 세기의 동아시아사를 재검토한다->

참가자의 자기 소개

○ 8 월 8 일 (화) 전일정 원탁회의 (오전 9 시~오후 6 시)

각 세션은 100 분으로 3 명의 연구발표 (각 20 분)+ 지정질의 (각 3 분)

각 세션의 사회(좌장)는 실행위원회 서포트그룹 멤버가 담당한다.

【문제 제기】유결

【연구 발표】

일본	하시모토 유	Hashimoto Yu	홋카이도대학	몽고습래회사(蒙古襲口口詞)를 해독한다
일본	무카이 마사키	Mukai Masaki	도시샤대학	몽골제국과 화약 무기
일본	유키카이치 야스히로	Yokkaichi Yasuhiro	쇼와여자대학	몽골·임팩트의 일환으로서의 「몽골습래」
중국	손위국	Sun Weiguo	남개대학	조선 작성된 고려 사서에 나타난 원나라일본원정에 대한 역사 서술
중국	장가	Zhang Jia	북단대학	‘심 찬 호 모 深 簷 胡 帽’: 한 가지 여진 모자

				양식의 몽·원 그리고 이의 이후시대의 흥망사
한국	김보광	Kim Bo-Kwang	가천대학교	일본원정을 둘러싼 고려 충렬왕의 정치적 의도
한국	이명미	Lee Myung-Mi	서울대학교	대몽전쟁·강화의 과정과 고려의 정권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한국	조원	Cho Won	한양대학교	14 세기 몽골제국 음식문화의 고려 유입과 변화
내몽골	조극도	Borjigen Chogt	내몽고대학	쿠빌라이가 일본에 보낸 명령문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비교 연구
내몽골	에르데니바트르	Eerdunbateer	내몽고대학	고대 몽골인의 이름을 통해 고찰한 몽골과 그 밖의 국가, 민족 간의 관계
몽골국	체렌도르지	Tsegmed Tserendorj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북원과 고려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 -우왕대 관계를 중심으로-

- 일본인 신진중견 일본사 연구자를 5 명 정도 초대. 특정한 논문이 아니라 자유롭게 토론. 교통비와 체재비는 아츠미재단이 전액보조. 2 명에게 세션 좌장을 부탁. 같은 형태로 한국인 신진중견 한국사 연구자를 초대. 우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논문의 교정을 의뢰.
- 무라 가즈아키(미쓰이문고), 야마우치 신지(고베여자대학), 에노모토 와타루(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사토 유키(릿쿄대학), 아라키 가즈노리(국립역사민속박물관), 기다 기요시(시즈오카대학), 최영창 (국립진주박물관) , 한승훈 (고려대)
- 8 월 9 일 (수) 오전: 종합 세션 (총괄과 자유토론)
 - 사회 진행: 유결
 - 논점 정리: 조광
 - 토론 (일중한몽에서 각 1 명 질문, 그 후 자유토론)
 - 총괄: 미타니
 오후: 몽고내습 박물관과 유적 견학 (발표자와 실행위원은 전원 참가)
- 8 월 10 일(목) 아침: 발표자와 동시통역은 해산.
- 오전: 실행위원 (주요멤버와 서포트그룹)은 회의후 해산.

- 실행위원회
- ① 주요멤버
 - 갈조광(북단대학), 조광(국사편찬위원회), 미타니 히로시(아토미 여자학원대학), 유결(와세다대학)
- ② 서포트그룹
 - 이은민 (오비린대학), 서정파(북단대학), 팽호(오사카시립대학), 나히야(내몽고대학)
 - 김범수(동경학예대학), 김경태 (고려대학교), 정순일(고려대학교, 회의는 참석하지 않음)
- ③ 동시통역(가능한 같은 사람에게 부탁)
 - 일본어 ↔ 중국어: 정리(북경대학), 송강(북경외국어대학)
 - 일본어 ↔ 한국어: 이혜리(한국외국어대학), 안영희(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 중국어 ↔ 한국어: 이금화(프리랜서), 박현(프리랜서)
- ④ 사무국 (아츠미재단): 이마니시 준코, 츠노다 에이이치, 혼다 야스코, 나가이 아유미(일본어 리포트 편집) / 통역 등 보조: 홍성민(와세다대학), 전상률(도쿄대학), 송함(도쿄대학)

- 일정표
- 12 월말까지 발표자 확정.
- 1 월말까지 발표 제목, 발표 요지, 약력 제출.
- 4 월말까지 원고(5~10 페이지) 제출.
- 6 월 중순까지 번역.
- 7 월 상순에 참가자에게 자료 송부. 예고집 간이 인쇄.
- 8 월 7 일~10 일 원탁회의
- 8 월 말까지 논문 수정 접수
- 연도내 리포트 (논문집) 편집 및 발행

- 기타
- 옴져버로서 자비 참가도 인정한다. 숙박, 식사, 견학 등은 아츠미재단이 함께 수배하고, 참가비 4 만엔을 징수한다. 5 명 정도까지. / 도위삭 (북단대)
- 8 일 연구발표와 9 일 오전중의 종합토론은 일반 공개.

